

김정주의 발자취를
담은 자서전

다
른
데
한
울
으
로
소
도
당
하
라!



| 김정주 지음 |

목 차

제1부 농업을 통해 훈련받다.

서문. 작가의 삶	15
01. 소주밀식(小株密植)을 하면 약해지는데…?	24
02. 멀칭(mulching) 비닐 재배	25
03. 원정 농업(遠征農業)	28
04. 창문 봉지	29
05. 불량 초롱무 씨앗	33
06. <농안법> 파동	35

제2부 민원 해결사

남다른 길을 가다	
01. 왕도(王道)	42
02. 용기(勇氣)	53
상생(相生)의 지혜	
01. 패자(敗者)없는 해결책	54
02. 상생(相生)의 지혜는 평화(平和)를 조성한다.	57
03. 상생(相生)의 시작은 소통	65
예산 만들기	
01. 예산 만들기	67
02. 빠질 뻔했던 예산	73
공무원의 두 얼굴	
01. 성실한 ‘천’ 팀장	78
02. 공무원의 태만은 시민의 고통	82
03. 공무원의 연필	84
대화와 소통이 열쇠	
01. 만나서 대화하면 방법이 나온다.	89
02. 불법 시설의 양성화	94

03. 궁평항 개선(改善) 사업	97
04. 필요한 것은 ‘의지’	98
05. 동탄 중앙로 U턴 허용	102

체육 활성화

01. 생활 체육은 시민(市民)의 체육	106
02. “이럴 바엔 시(市)에서 사자!”	108

민원의 생명은 신속! 정확!

01. 해결은 신속하게! 지원은 확실하게!	112
02. 접수 다음날 해결	114

무에서 유를 만들다	116
------------	-----

계속 발전하는 화성人

01. 장애인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조언(助言)	117
02. 480만 평에 대한 개발 구상	122

제3부

‘대화’와

‘소통’의 정치

01. 탈당(脫黨)! 소신 있는 의정 활동을 위하여!	128
02. 내가 생각하는 시 의원이란...	139

* 부 록	148
-------	-----

* 의원발의 안건 현황	156
--------------	-----

* 걸어온 길	157
---------	-----

01. 소주밀식(小株密植)을 하면 약해지는데…?

우리 집은 논이 있어도 소득이 별로 없었다. 마침 임대할 수 있는 야산 개발지(국유지, 밭)가 10,000평 있다는 정보를 얻고서 화성군청 산림과를 찾아갔다. 그런데 1인당 3,000평 이상은 계약이 안 된다고 해서 나와 어머니와 형, 세 사람의 이름으로 계약을 하였다. 이렇게 땅이 마련된 1984년부터 나의 본격적인 농업 인생이 시작되었다.

참깨 소득이 좋을 것 같아서 경기도 양주까지 가서 종자 소독하는 법(벤 레이트)을 배우고 <단백>이라는 참깨 품종을 심었다. <단백>이 소출이 좋고 내병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첫 해에 6,000평에서 45가마니(60kg 1가마니) 소출이 나왔다. 그 당시에 참깨 1가마니가 45만 원 했다. 쌀 1가마니가 3만 원이었으니 둘의 소득의 차이가 엄청나게 컸던 것이다. 그래서 참깨를 대대적으로 심기 시작했으며, 1987년에는 1만 5,000평에서 110가마니의 소출을 올리기도 했다.

참깨 농사가 성공하니까, 복합 영농으로 벼농사도 같이 지을 생각이 들었다. 그 당시 다수확 품종이었던 통일벼를 ‘소주밀식’(못 줄을 사용하여 간격을 좁게 심는 방법)했다. 통풍이 안 되면 문고병이나 잎집무늬마름병이 생기기도 하고 태풍이나 비와 바람에 쉽게 쓰러지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도록 10줄마다 간격을 넓

게 띄웠다.

또 한 가지는 ‘밀식’하는 데서 생기는 문제였다. ‘밀식을 하면 포기 줄기가 약해져서 태풍이나 비와 바람에 쉽게 쓰러질 텐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연구한 끝에 생각해 낸 것이 바로 <고추 지지대>였다. 고추 지지대를 고추밭에 하는 것보다 더 촘촘히 300평 논에다가 다 박고 줄을 쳤다. 그렇게 해 놓았더니 비 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와도 꼬딱없었다. 물론 이렇게 하는 데 인건 비가 많이 들어간 건 사실이지만, 내게 더 중요한 ‘명예’를 얻는 일이라면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었다.

심사 위원들이 와서 보고는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정성이 대단하다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실제로 1986년 그해 마지기(150평)당 9가마니를 생산하여 화성시 쌀 증산왕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누리기도 했다. 보통은 마지기당 3~4가마니를 생산한다.

02. 멀칭(mulching) 비닐 재배

1) 문제점

참깨의 파종은 5월 10일에서 5월 25일까지가 적기이다. 그리려면 5월 20일까지는 땅을 놀려야 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는 넓은 땅을 그냥 놀리는 게 아까웠다.

2) 또 다른 문제점

그래서 알타리무 터널 재배를 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점이 생겼다. 알타리무는 5월 말이 출하 시기이기 때문에 참깨 파종 시기와 겹쳤다. 서로 시기를 안 겹치게 하려면 참깨 파종 시기를 6월 초로 늦춰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수확량이 절반으로 떨어졌다.

3) 해결

나는 86년에 양파 주산지인 전라도 무안으로 달려갔다. 거기서 ‘멀칭 비닐 재배’라는 독특한 재배법을 배웠다. 바닥에 투명한 비닐을 깔고, 비닐에 구멍을 뚫어서 구멍마다 알타리무 씨 2, 3개를 심는다. 그러면 투명한 비닐 안쪽이 햇볕을 많이 받으니까 온도가 올라가고, 온도가 올라가면 비닐 안쪽의 수증기가 구멍 난 데로 모이는 일명 ‘모세관 현상’이 나타난다. 이 모세관 현상으로 구멍 난 곳 즉, 씨가 뿌려진 곳은 항상 습기를 머금고 있게 된다.

이 방법으로 알타리무를 재배하면 우선 알타리무의 외관이 깨끗하고, 구멍 크기만 한 일정한 크기마다 규격화해서 찍어 낸 듯한 모양으로 나와서 상품성이 높았다. 특히 이 재배법을 사용하면 수확 일을 20일 정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참깨와의 이모작 재배에 따른 문제를 깨끗이 해결할 수 있었다.

알타리무 재배는 성공적이었다. 거기서 얻는 수익으로 참깨 재배에 들어가는 비용과 땅 임대료까지 다 댈 수 있었다. 더욱이 참깨는 8월 20일에서 30일 사이에 수확하기 때문에 그다음 김장용 알타리무를 이어 심기 할 수도 있었다. 이를테면, 3모작이 가능한 셈이다.



알타리무 멀칭 비닐 재배



무럭무럭 잘 자란 알타리무



알타리무 작업과정

03. 원정 농업(遠征農業)

1) 착안점

화성에서는 아무리 빨라도 3월 10일이 되어야 알타리무를 심을 수 있었다. 그런데, 전라도는 여기와 4~5도의 기온 차가 있어서 2월 초에 심어도 되었다. 파종 시기를 1달 이상 앞당길 수 있었던 것이다.

2) 시도

87년에 다시 전라도 무안으로 내려가서 지금의 <무안 비행장> 부지에서 고구마 농사를 짓던 땅 2만 평을 빌렸다. 고구마는 4월 중순에서 말경에 심기 때문에 2월 초에 심어 55~60일이 지나서 수확하는 알타리무와 아무 문제가 없었다. 말하자면, 고구마를 심기 전까지 알타리무 재배 기간을 임대했던 것이다.

무안까지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농사를 짓다 보니 관리하기가 쉽지 않았다.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출하할 때까지 거기서 살아야 하였다. 이 문제는 근처에서 5,000평 고구마 농사를 짓는 현지인에게 보수를 주기로 하고 관리를 부탁하면서 해결되었다.

3) 결과

이 일은 시험 재배였기 때문에 불안해서 혼자하지는 못하고 엄용

철씨 하고 동업을 했는데, 다행히 결과가 좋게 나왔다. 2만 평 농사를 지어 들어간 비용을 다 빼고서도 8,0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던 것이다. 수익은 엄 씨와 4,000만 원씩 나눠 가졌다. 나는 그 돈으로 화성 땅 2,000평을 사서 알타리무와 참깨를 심었다.

4) 또 다른 시도와 영향

알타리무 봄 재배에 재미를 본 나는 가을에도 임대 재배를 하려고 다시 무안으로 내려갔다. 무안에서는 늦어도 9월 15일까지는 파종을 해야 김장용 알타리무를 팔 수 있었다. 그 시기가 지나 버리면 파종을 해도 자라지를 않았다. 또 중부 지방에서는 10월 말이나 11월 초가 되면 서리가 내려 작업을 할 수 없었던 반면에 무안에서는 11월 말까지도 작업이 가능하였으니 여전이 상당히 유리했다.

내가 원정 농업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따라 하기 시작했다. 지금도 전라도에서 원정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중에는 이곳 화성 사람들이 많이 있다.

04. 창문 봉지

1) 환경의 변화

98년부터는 알타리무 작농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재배 농가가 급속도로 증가했으며, 그에 따라 인건비도 계속 올라서 최고 10배 이상까지 올랐다. 그래서 알타리무만으로는 안 되겠다

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포도 농사를 계획하게 되어 벼, 알타리무, 참깨와 함께 농사를 짓게 되었다.

2) 배우기 위해 기울인 노력

포도 농사를 배우려고 안성에 있는 한경대학교 원예학과에 입학했다. 학교 다니면서도 수업 시간 외에는 3,000평 땅에 포도 농사를 짓고 또 알타리무 농사를 지으면서 ‘학업’과 ‘영농’을 병행해 나갔다. 그렇게 하니까, ‘이론’을 ‘실제’에 바로 적용하는 이점이 있었다. 대학 교육을 마치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원예학 석사로 졸업하였다.

포도 농사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물 빠짐, 통풍 등 토양과 관련된 것과 ‘바닷가냐?’ ‘내륙이냐?’ 하는 환경과 관련된 것들이 있다. 이런 요인들만 잘 맞추어도 당도를 19브릭스 (brix, 액체에 있는 당의 농도를 대략적으로 정하는 단위. 대개 과일은 10~15brix 범위에 있다)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하지만 포도 재배에 성공하는 핵심 기술은 ‘알 속음’이다. 포도는 원가지에서 나온 아들 가지에 대개 2송이씩 열린다. 그래서 나무 한 그루에 40~55송이 정도가 열리는데, 상품(上品) 포도송이를 얻는 방법은 보통 한 송이에 150~200개 정도 붙어 있는 포도 알을 45~75개가 되도록 속아 주는 것이다. 나는 시차를 두고 두 번에 걸쳐 속아 주는 방법을 권한다. 처음에는 알을 속아 내는 것을 아까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나의 어머니도 처음에는 아까워서 속아 내지를 못하셨다. 비록 마음이 아프더라도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해야

만, 알이 굵고 건강한 상품 포도송이를 거둘 수 있다.

3) ‘창문 봉지’ 개발과 성공

포도송이에 씌우는 일반적인 봉지로는 안에 든 포도를 들여다볼 수가 없다. 그렇다고 봉지 한쪽을 뜯거나 찢으면 그쪽으로 벌레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다. 그래서 나는 독창적으로 ‘창문 봉지’라는 것을 제작하여 사용했다.

‘창문 봉지’는 세로로 길게 셀로판종이를 넣고 거기로 벌레가 들어가지 않을 만큼 작은 공기구멍들을 뚫어 놓아 통풍이 잘 되게 만든 봉지이다. 셀로판종이는 종이로 가려져 있어서, 종이를 떼어 올리면 투명한 셀로판을 통해 안에 든 포도송이를 볼 수 있다. 창문 봉지가 재배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편리한 점 몇 가지를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 상품 포장을 했을 때 보기 좋다.
- 봉지를 뜯거나 찢지 않기 때문에 벌레가 들어갈 수 없다. 따라서 병충해가 별로 발생하지 않는다.
- 열매가 자라는 과정과 상태를 관찰할 수 있다.
- 소비자가 상품의 상태-알 속음을 제대로 했는지, 병이 있는지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신뢰도를 높여 준다.

창문 봉지는 보통 봉지보다 장당 5원이 더 비싼 25원에 제작했다. 이 5원의 차이 때문에 이 봉지가 지금까지도 일반화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박스 당 화성에서 제일 높은 값으로 3,000~5,000 원 더 올린 값으로 팔 수 있었다. 또 직판으로 팔았으니 운송비나 수수료 등 다른 부대비용이 나갈 게 없었다. 이렇게 포도 재배에서도 성공을 거두어 3,000평에서 순익 5,000만 원을 올릴 수 있었다.

■ 창문봉지와 일반포도봉지 비교



<창문봉지>



<일반포도봉지>

■ 창문봉지 상세사진



<뜯는 방향표기>



<뜯은 모습>



<캡벨창문봉지>

05. 불량 초롱무 씨앗

초롱무는 알타리무의 개량형이다. 알타리무는 뿌리 끝이 뭉툭한데다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뿌리에 까만 테가 생기는 ‘묵흑 증상’이 있다. 그에 비해 초롱무는 뿌리가 크고 매끄럽게 잘 생겼다.

개량형인 만큼 초롱무에는 알타리무보다 재배에 유리한 장점들이 있다. 우선, 내병성이 강하고 줄기가 단단하여 장마철에도 잎이 상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상부(줄기와 잎)를 식용할 수 있는 다발무로 적당하다. 또 내습성과 내서성이 강하여 여름에도 뿌리가 썩지 않기 때문에 알타리무 재배가 어려운 고온기에도 재배가 가능하다.

이처럼 유리한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종자 값이 비쌌지만 수요가 많았다. 종자는 당시 서울에 있던 한 종묘 회사에서 만들어 팔았다.

그런데, 판매업자가 제대로 된 종자를 팔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다. 이형주(異型株. 한 개의 집단에 유전자 표현형이 다른 식물체가 섞여 있는 것)를 유통시키는가 하면, 심지어 발아가 되지 않게 씨앗을 볶아서 팔기도 했다. 이런 씨앗을 사다 심은 농민들은 그저 날씨가 나빠서 짹이 안 나오는가 보다 하고 생각했던 것이다. 또 이형주는 성장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웬만한 농민들은 구별할 수 있었다. 우선 뿌리를 뽑아 보면 초롱무 모양이 안 나왔다.

그러다가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결국 92년에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나는 <초롱무 종자 피해 대책 위원회>를 조직하고 활동을 주도하였다. 판매업자는 기후 탓으로 돌리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다. 우리는 종묘 회사 건물 앞에서 데모를 하기도 했다.

사건이 신문에 날 때까지만 해도 전혀 움직이지 않던 종묘 회사가 사건을 방송에 내겠다고 하니까 협상에 응했다. 우리는 협상에서 손해 배상으로 3억 원 어치의 종자를 받아 냈다.

이 사건을 보도한 기사를 아래에 인용해 본다. 기사의 제목은 “불량 무 씨앗 판 업체에 화성 주민들 보상 요구”이다.

[경기도 화성군 우정·장안·마도면 일대 농민 100여 명은 지난 6월 말경 모 종묘 회사(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에서 구입한 <초롱무> 씨앗이 불량해 농사를 망쳤다면서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29일 화성군 농촌지도소와 김정주 씨 등 농민들에 따르면, <초롱무> 씨앗 10리터를 75만 원에 구입하여 지난달 초순부터 8월 초 사이에 파종했으나 초롱무가 제대로 자라지 않거나 품종이 다른 무가 발견되고 있다는 것. (동아일보 92.8.29.)]

06. <농안법> 파동

1) 입법과 문제점

<농안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의 약자이다. 농안법에는 이 법의 시행 목적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 생활의 안정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안법의 시행으로 97년 8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대한 경매가 실시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이 시행을 위한 충분한 준비 단계를 생략하고 강압적이면서 일방적으로 시행되었다는 점이다. 시장에 있는 농산물 유통 법인들이 자기들의 수수료(경매가의 6%)를 챙기려고 입법 기관인 국회의원들에게 로비해서 통과된 법이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입법 목적에 명시된 것처럼 정부가 주도하여 중간 상인들을 없애고 생산자인 농민들한테 실질 소득이 돌아가게 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공산품이나 일반 상품처럼 규격화되지도 않았고 장기간 보관해 둬다가 팔 수 있는 것도 아닌 채소 같은 품목에 대한 대책이 미흡했다. 따라서 알타리무를 포함한 몇 가지 품목에 대해

서는 이 새로운 법 시행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2) 길고 긴 3일

오래 걸리지도 않았다. 농안법이 시행된 첫날, 이 법이 얼마나 잘 못되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것이다. 우리 알타리무 재배 농가 농민들은 4.5톤 트럭 27대에 알타리무를 가득싣고서 가락동 시장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경매 전날까지만 해도 500만 원 나가던 값이 경매에 붙이니까 반 토막으로 뚝 떨어졌다.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었고, 그 가격에는 팔 수가 없었다.

보통 한 차에는 알타리무 3,500~4,000단이 실렸다. 차떼기로 넘기는 경매 방식으로는 그 속에 있는 물건들의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사는 사람은 우선 싸게 사려고 할 수밖에 없었다. 또 야채는 눈으로 상태를 보고 사야 하는데, 차에 실린 물건을 다 내리기에는 시장 면적이 좁았다. 뿐만 아니라 4.5톤 트럭에서 물건을 다 내리려면 4~5시간은 족히 걸렸고 인부들도 여럿이 필요하였다. 시장에서는 ‘제값을 받으려면 선별해서 팔라’고 했지만,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 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환경이었다. 그래서 트럭 27대 모두는 경매를 거부하고 유찰을 시켰다.

다음날인 8월 2일이 되자 기온은 30도를 넘어갔고, 포장을 씌워 놓은 트럭에서는 탁한 물이 흘러내리고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간파한 나는 알타리무 작목반 회장의 권한으로 긴급하게 회원 소집 명령을 내렸다. 그날 저녁 7시까지 300명 정도가 가락동 시장에 집결했다.

우리는 현수막을 만들고 데모 방법을 짜서 최종 목적지인 국회 의사당으로 항의 방문을 하러 갔다. 그리고 언론사와 KBS, MBC, SBS 각 방송사에 연락하여 농안법이 지닌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법을 만든 국회 때문에 농민들이 받아야 하는 피해가 막심하여 지금 국회로 항의 방문차 가는 중인데, 이 자리에서 한 농민이 분신자살을 할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그리고 나서, 취재하러 나오려거든 나오고 말려거든 말라고 했더니 다들 카메라를 들고 달려 나왔다.

마침 화성경찰서 정보과에 근무하는 한 형사와 친분이 있었다. 그를 만났더니,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나를 핵심 주동자로 보고 신상 파악을 했으며, 체포까지도 생각하더라고 말해 주었다. 그러면 서, ‘절대로 전면에 나오지 말고 후미에서 집회를 잘 조종해 나가며, 인터뷰할 때만 나오라’고 조언해 주었다. 그 역시 농안법 때문에 농민들이 받는 고통을 이해하고 마음으로 동조하기 때문에 그런 조언을 해 준 것이다.

나는 그의 조언대로 전면에는 다른 사람을 내세우고 중간에서 집회를 조종해 나갔다. 그리고 인터뷰에 나가 농안법의 부당성을 철저히 알렸다. 트럭 27대가 송파사거리까지 진출하니까 경찰이 방어진을 치고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

3) 문제를 바로잡다

저녁 9시에서 11시까지 2시간 동안 옥신각신 대치하는 가운데 송파사거리는 교통이 통제되면서 난리가 났다. 알타리무를 잔뜩 실

은 4.5톤 트럭 27대가 경찰과 대치하면서 도로를 점하고 있는 상황을 상상해 보라! 마침내 농안법 시행을 주도했던 사람들과 시장법인들로부터 협상 제의가 들어왔다. 나는 그들의 제의를 받아들였다. 데모의 원칙들 중 하나는 강하게 나가면서도 항상 협상의 여지를 남겨 놓는 것이다.

다음날인 8월 3일 오전 10시에 가락동 시장에서 농림부 관계자와 법인 관계자 그리고 대학 교수들(농안법 초안 작성자들)과 10여 명의 농민들 사이에 회의가 열렸다. 나는 농민 대표로서 농안법의 부당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해 주었다.

“산지에서 100원 하는 배추가 소비자에게 가면 1,000~2,000원 하는 이유를 압니까? 유통 단계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밭에서 다 자란 배추가 시장에 도착하면 맨 먼저 위탁상이 하역해야 하고, 하역하고 나면 배추를 2, 3포기씩 묶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다 묶고 나면 리어카 끈이 와서 실어 가고, 그리고 나서 중간 도매상이 가져다가 소매상에게 넘기는데, 대략 5~6단계별로 수수료가 붙게 됩니다.”

이렇게 문제점을 말했더니 다들 유구무언이었다. 나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오이나 호박이나 수박하고는 다릅니다. 그것들은 며칠 동안 보관할 수 있지요. 오이는 1주일이 지나도 썩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외 대부분의 채소는 하루 이틀만 지나도 다 썩어서 버틸 수가 없습니다. 사정이 이런데 경매를 하라는 것은 중간 상인들한테만 이득

을 안겨 주고 농민들한테는 농사를 짓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법입니까?”

참석한 모두에게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상장 예외 품목 8가지가 정해졌다. 이 8가지에는 배추, 무, 알타리무, 시금치, 쪽파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들은 경매를 거치지 않고 위탁상이 소비자에게 직접 팔 수 있게 했다. 그 결과 알타리무는 지금까지도 경매를 하지 않는다.

또 경매를 진행하지 못해서 생긴 손실에 대한 보상도 가락동 시장 법인에서 받아 냈다. “당신들이 시행을 잘못해서 생긴 거니까 물어내라!”고 요구해서 트럭 1대당 290만 원씩 보상을 받아 낼 수 있었다. 물론 싣고 간 알타리무는 다 상해서 버려야 했다.

이 일을 계기로 시장과 농림유통업계에서는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해서 개선시키는 나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게 되었다. 지금도 내게 전화를 해서 자문을 구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알타리계에서는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를 잡았으며, <알타리 김정주>라는 새로운 별명도 얻게 되었다.

4) 새로운 아이디어

그 일을 겪으면서 착안하게 된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다. 다들 알다시피, 야채는 보관성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다. 그래서 염장법(鹽藏法)을 개발하여 알타리무를 소금에 절여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거기에 양념장을 겹하면 기호에 맞게 담가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성남시 청계산 아래쪽

에 있는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을 찾아가서 염도(鹽度) 부분에 대한 연구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게 진행이 안 되면서 몇 년이 흘러 가자 절임 배추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앞으로는 절임 알타리무도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 개인적으로는 회의나 워크숍에서 염장 부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남다른 길을 가다

01. 왕도(王道)

1) ‘준비’와 ‘연습’

2010년 제6대 지방 선거 결과 원 구성은 새누리당이 8명, 더불어민주당이 8명, 민주노동당이 1명으로 보수당인 새누리당이 1명 적었다. 게다가 공교롭게도 나를 포함하여 모두가 초선이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의회가 구성되자마자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었다.

앞서 2002년 지방 선거에서 패한 후로 지역의 사회단체 활동을 열심히 수행하며 ‘감사’와 관련된 일을 직접 해 볼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감사의 내용이 어떤 건지는 잘 알고 있었다. 물론 일반 사회단체와 시 의회 사이에는 다른 점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경험이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유용하게 사용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나는 우정읍사무소로 1주일 동안 출근하면서 행정 경험이 많은 읍장에게 자문을 많이 받았다. 조례를 찾아 실제로 적용시켜 보면 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준비를 충분히 했다. 의원들이 다 초선인

데다, 의회로 들어오자마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이다 보니 준비도 영 안 되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감사장에서는 공무원들이 의원들을 좀 무시하는 태도가 있었다.

하지만 나는 현장 경험도 풍부한데다가 새로 공부한 것까지 더해 서 확실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다. 시 의원으로서 맞는 첫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김정주의 예리한 질문이 입에서 입으로 소문을 타기 시작한 것이다.

본예산을 심의할 때 <창의 지성 교육> 예산으로 209억 원의 예산을 올렸다. 그때는 종합 체육관을 짓느라고 진 빚이 많아서 본예산을 깎아 마이너스 예산을 세워야 할 정도로 시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209억 원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었다. 나는 상임 위원회를 통하여 올라온 이 예산을 예결 위원회에서 논리적으로 따져 들어갔다.

- 초 · 중 · 고교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지방 정부가 아니라 중앙 정부에서 세우는 것이다.
-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조례도 없다.

이상과 같은 이유를 들어 예산 209억 원 전액을 삭감했다. 이런 일은 의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지만, 공무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시는 지원 조례를 만들었으며, 그다음 1차 추경예산 때 다시 110억 원의 예산을 올렸다.

나는 남부권 국민체육센터(다목적 체육관) 부지 매입비 50억 원을 요청했고, 결과적으로 이 두 예산이 같이 올라가게 되었다.

2) 간담회

내가 전반기에 맡은 직책은 <복지환경위원장>이었다. 17명 전원이 초선인지라, 회의 운영 방식이나 의정 활동에 대하여 모르는 게 많았다. 또 사회단체가 겪는 애로 사항에는 시의 정책이 주는 영향이 컸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의 흐름을 빨리 파악하기 위하여 생각해 낸 것이 간담회를 통한 문제 해결 방식이다. 나는 지금까지도 이 방법을 선호한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어린이집 원장, 화성시 어린이집 연합회 임원진과 시 집행부의 여성보육과 과장 그리고 국장, 의회의 해당 상임 위원들-문제 제기자와 시 집행부 그리고 의회 의원들이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고 토의를 벌이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그다음 상충되는 부분을 조정하면 문제는 대개 해결된다. 설사 해결되지 않더라도, 안 되는 이유-예를 들면, 법률 문제 등을 알게 되기 때문에 불만이나 실망감을 갖지 않고 상황을 이해하기가 쉽다.

나는 지난 2년 동안 가진 34번의 간담회를 통하여 체육, 문화 등 많은 분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간담회는 결국 대화를 통한 소통을 강조하는 것이며, 이것이야 말로 언어 능력을 가진 인간이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고 확신한다.

여기에 내가 사회단체와 가졌던 몇 가지 간담회를 소개해 본다.

- 화성 두레 보존회
- 농업 기술 센터
- 화성 유치원 연합회
- 작은 도서관 설치를 위한 간담회
- 사회 복지 중간 관리자와의 간담회
-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 건강 가정 지원 센터
- 창의 지성 교육에 관한 간담회
- 상공회의소 관계자와의 간담회
- 화성시 근로자 종합 복지 회관 신축 간담회
- 화성시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간담회
- 복지경제위원회 워크숍
- 도서관 위탁 관련 간담회(3회)
- 직장 운동 경기부 운영 관련 간담회
- 보육 협의회 간부와의 간담회

이 가운데 가장 큰 보람을 느꼈던 간담회가 뭐냐고 묻는다면 “보육 협의회 간부와의 간담회”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 간담회를 통해 어린이와 아동 보육의 문제점을 확실히 알게 되자, 거기서 그치지 않고 대안(代案)을 찾고 싶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설치한 것이 바로 내가 위원장으로 활동한 <화성시 어린이집 운영 실태 파악 및 개선 대책 마련 특별 위원회>였다. 이 특위 활동 중에

가졌던 여러 건의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참고용으로 이 책 부록에 실어 놓았다.

작년에 <창의 지성형 어린이집>으로 총 113개 어린이집-가정·민간 어린이집 65개, 국공립 어린이집 29개, 공공형 어린이집 19개-이 지정된 것도 이 특위 활동의 결과물이다. 창의 지성형 어린이집 기준에 맞고 현재 열심히 하고 있다면 누구나 신청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창의 지성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되면 학습 프로그램과 운영비 그리고 교사 처우 개선비 등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화성시 의회는 지난 제142회 임시회 중에 <화성시 어린이집 운영 실태 파악 및 개선 대책 마련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5월 1일부터 7월 31일 까지 약 3개월간의 활동을 시작했다.

특별 위원회는 5명의 의원(김정주, 노경애, 이성희, 최용주, 허인숙)으로 구성됐으며, 1일 1차 회의를 열어 김정주 의원을 위원장으로, 최용주 의원을 간사로 선임했다.

특별 위원회는 이날 또 어린이집 연합회 임원과의 간담회를 열어 특별 위원회의 활동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어린이집 운영의 애로 사항 및 건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향후 특별 위원회는 어린이집 분과별로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관내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 운영 실태를 파악한 뒤 개선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를 영·유아 보육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화성 신문 2015.5.1. 어린이집 운영 실태 파악 · 개선 대책 마련 특위 구성]



<화성시 어린이집 운영 실태 파악 및 개선 대책 마련 특별 위원회>

3) 현장 방문

민원인의 말과 서류에만 의존하면 현장 감각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민원인은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주로 자기 생각과 주장을 위주로 말하게 된다. 따라서 듣는 사람이 균형을 잘 잡지 않으면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처럼 균형을 잡아 공정성을 기하는 데 현장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또 아래 ‘사례’에 잘 나타나 있듯이,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면 문제의 실상을 파악하기가 훨씬 쉽다.

시 의원의 현장 감각이 떨어지면 담당 공무원과 의논할 때 문제를 풀어 가기가 어렵다. 현장을 확인하지 못했으니,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격”의 대화로 빠지기가 쉽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나서 대안을 가지고 접근해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나는 지금까지도 민원이 제기되면 100% 현장을 방문하여 눈으로 확인한 후에 공직자를 만나는 습관을 갖고 있다.

① 사례 1

- 한 민원인이 시골에 농가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시에서 허가를 안 내준다고 함. 자기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 함.

- 현장을 방문해 보니 호안 벽돌을 3m 정도로 쌓아 올려 이미 토목 행위를 한 상태였음. 법적으로 ‘사전 행위’를 하면 허가가 나오지 않음.

- 원상 복구를 하고 새로 절차를 밟아서 하게 됨.
- 민원인 말만 듣고 진행했더라면 공무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게 되었을 것.

② 사례 2

- 장안면에 사는 ○○○이라는 분이 집을 지어 이사를 갔는데, 집에 상수도가 안 들어왔다고 함.
- 현장 방문을 갔더니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관로가 지나가고 있는데도 연결시켜 주지 않았음. 이유는 객지에서 들어왔다고 이장이 고의로 빼 버림.
- 시청 생활수도사업소 담당자들에게 이 내용을 말하고 현장을 가 보게 함. 이 문제가 시정되어 올 4월부터 물이 정상적으로 공급됨.



<상수도 준공>



<상수도 계량기>

③ 사례 3

- 남양읍 신남리 정 씨 소유의 집과 관련된 민원임. 정 씨의 집은 46년에 ‘신축’으로 처음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지만, ‘건축물 현황’의 ‘구조물’ 난이 빙칸으로 남아 있음.
- 주택 담보 대출을 받으려고 은행에 갔는데, ‘구조물’ 난 때문에 은행에서는 난색을 표함.
- 시청 실무자를 찾아가서 ‘구조’ 난의 빙칸을 채워 달라고 요구했더니, 실무자는 건축설계사무소를 찾아가서 도면을 그리고 확인서를 받아서 갖고 오라고 함.
- 건축설계사무소를 찾아갔더니, 300~500만 원의 비용이 들고 시간은 1달 정도 걸린다고 함. 그래서 정 씨 조카가 나를 찾아온다.
- 시청 건축과의 담당자에게 도움요청을 함. 불러서 건축물 대장을 놓고 설명함. 46년에 실무자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누락시킨 것 같음.
- 정 씨 조카와 같이 건축과에 가서 실무자와 협의를 거쳐 그날 현장 방문을 하고 2017년 6월 19일 민원 접수를 해서 구조물 난에 목조 건물로 등록됨.

사례에서 보듯이, 현장 방문은 공무원이 반드시 이행하는 업무 처리 방식이 되어야 한다. 공무원들이 현장 방문을 등한시하면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그러므로 기회 있을 때마다 공무원들에게 현장 방문의 중요성을 계속 주지시킴으로써 시민 사회가 건강할 수 있는 공무원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사전을 찾아보면, ‘왕도(王道)’라는 단어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임금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둘째, 인덕(仁德)을 근본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도리. 유학(儒學)에서 이상으로 하는 정치사상이다.

셋째, 어떤 어려운 일을 하기 위한 쉬운 방법.

나는 이 세 가지 의미에 가장 부합하는 것으로 <대화>와 <소통>을 꼽고자 한다. 첫째와 둘째의 의미는 최근 우리나라 정치의 격변기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대화와 소통이 막히면 결국 물이 내부에서부터 썩어서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만다는 진리를 명백히 확인할 수 있었다. 참으로 대화와 소통은 통치자가 통치의 “도리”와 “방법”으로 삼아야 할 중심 덕목임에 틀림없다.

나는 간담회와 자문을 구하는 방법을 통하여 ‘왕도’의 세 번째 의미를 구현하고자 노력해 왔다. 민원인에게나 공직자에게나 내가 자문을 구하는 분에게나 나는 대화와 소통의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있다.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나 내가 찾아가는 사람과 대화하기를 꺼리지 않는다. 행여 이 문이 닫힐까 봐 걱정되어 절대로 닫히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있다.

독자는 이 책에 나오는 많은 사례들이 결국 대화와 소통이라는 한 가지 주제를 바탕에 깔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대화와 소통이 각각의 민원을 해결하는 데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독자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다. 그리고 많은 민원을 해결하는 데서 이 방법이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

대화와 소통이 없다면 해결할 수 있는 민원도 없다는 말은 과언

이 아니다. 반대로 대화와 소통이 물 흐르듯이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대개의 민원은 해결될 것이다. 따라서 나는 민원을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대화와 소통이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젊을 때 농사일을 시작할 때나 그 후 의정 활동을 시작할 때나 처음부터 이 왕도-남다른 길로 들어섰던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02. 용기(勇氣)

화성시 안녕동에서 자동차 관련 시설을 운영하는 최○○씨에 관한 이야기다. 이 분은 타이어 가게와 자동차 3급 정비(오일 교환, 브레이크라이닝, 에어컨필터 등의 간단한 정비)와 세차장을 운영하였다.

그런데, 200평방미터가 넘는 사업장(이 사업장은 260평방미터였음)에서는 유수(油水) 분리 시스템을 갖춰야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2가지 방법이 있다. 세차장을 분할해서 200평방미터 미만으로 만들든가, 아니면 유수 분리 시스템을 갖춰 하나로 가는 방법이다. 이 분은 시스템을 갖춰 하나로 가기를 원했다.

모든 민원에 관련된 법을 혼자서 꿰차고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누군가의 도움을 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일을 귀찮게 여기거나 어렵게 생각해서 주저하면 민원을 해결해 줄 수가 없다.

누구에게나 다 부족한 면이 있지만 다행히도 나는 나의 부족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자문과 협조를 구하는 용기를 타고 난 것 같다. 처음 시골로 내려왔을 때도 <농업기술센터>를 수시로 찾아가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며 농사일을 배워 나갔다. 의회에 처음 들어가자마자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었을 때도 1주 일 동안 우정읍사무소로 출근하여 직원들로부터 자문을 받았다. 이렇게 남다르게 기울인 노력은 내게 엄청나게 큰 도움을 주었다. 사실 자문을 받을 때마다 대나무가 새로운 마디를 만들어 내듯이 나의 능력도 한 뼘 더 성장해 나갔던 것이다.

관련된 법을 정확히 모를 때는 결코 민원인에게 ‘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선택은 민원인이 하는 거지만, 제대로 된 설명을 충분히 해 줘야 큰 낭패(재공사 등)를 피할 수 있다. 위의 민원의 경우에는 환경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는데, 그는 법령집을 보고 자문해 주었다. 법과 원칙을 잘 알아서 민원인을 도와주는 것이 의원이 할 도리라고 생각한다.

상생(相生)의 지혜

01. 패자(敗者)없는 해결책

며우리에 소재한 A업체는 자동차의 핸들 부품 등을 제작하여 기